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The City as a Living Museum-Ko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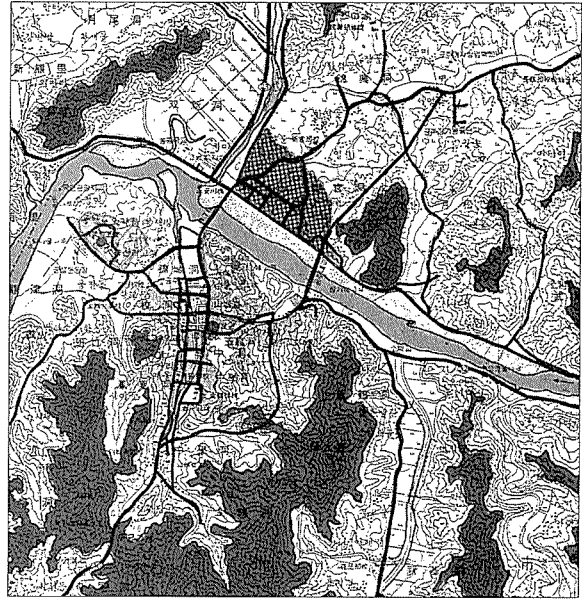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by Lee Hae-Jun

“문화와 교육”으로 상징되는 공주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곳곳에 남은 역사와 문화현장들
“도시이미지”와 공주 건축의 미래

‘문화와 교육’으로 상징되는 공주

공주는 흔히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불려진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서 무령왕릉과 공산성이라는 상징적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주에는 비단 이같은 백제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60여 년의 웅진백제의 역사보다도 더 길고 오랜, 그리고 복잡한 역사의 흔적들이 공주 땅에서 이루어졌다. 공주가 조선시대 충청도의 감영이 위치했던 곳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이전의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그리고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공주가 충청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모습에 주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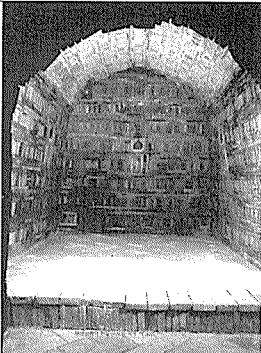
백제의 왕도였던 서기 5세기 이래 공주는 천 오백여 년간 충청도의 행정 및 문화, 교통, 물산의 중심 거점으로 줄곧 살아 있었던 것이다. 또하나 흔히 지목되는 공주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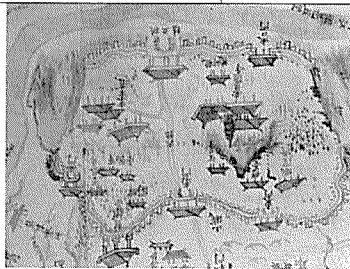
공주의 도시 및 지역현황(자료제공: 이재훈)

이미지는 ‘교육도시’라는 점이다. 이는 50여년 역사의 초중등 교사 양성기관인 공주사대와 공주교대가 있는 까닭이다. 공주에서 근대학교가 설립된 것은 1898년 민족계 사학인 공주사립 소학교에 이어 1905년에는 기독교 선교계통의 영명학교가 설립되어 근대 교육의 요람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후 일제시기에는 충남을 대표하는 교육기관들, 예를들면 공주고등보통학교, 공주여자고등보통학교, 공주농업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가 들어섰고, 특히 1938년에는 공주여자사범학교(공주교육의 전신)가 개교하여 교육도시 공주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해방후인 1948년에는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사범대학이 신설되어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의 중추로 명성을 인정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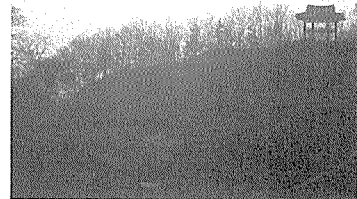
이외에도 공주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교원연수원, 충남공무원연수원, 운수연수원 등의 재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이 역시 교육도시로서의 전통이 그 기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전통기반으로 오늘날 공주에는 4개의 대학(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전문대학, 웅진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도합 70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가 전



무령왕릉의 현실 내부와 북쪽 벽 모습



공주목지도중의 ‘公山城’부분(조선후기)



공주역사의 산증인 공산성

주민의 3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공주는 백제시대에야 백제의 왕도였으니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후 부여로 새 왕도가 옮겨간 이후도 여전히 왕도로서의 이력에 필적하는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후 당군에 의한 웅진도독부의 설치, 그리고 당군이 축출된 이후에는 웅천주로 이름을 바꾸어 충청지역의 13개 군, 29개 현을 통괄하는 행정중심지로 존속하게 하였다.

그러에 의하여 반도가 재통일되면서 태조 23년(940) 공주는 명칭을 공주로 바꾸었다가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완료되는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이 설치될 때 공주목으로 승격되어 다시 충청지역의 행정중심지로 부각된다.

이같은 변화를 거쳐 조선시기에 들어오면 공주에는 충청감영의 소재지이자 관찰사가 위치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즉 임란 직후인 선조 31년(1598)에는 충청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되므로써 명실공히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감영의 공주 이전에 따라 충청도의 명칭은 공충도(公忠道)·공홍도(公洪道)·공청도(公淸道)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정조조에 이르러 한때 충청도를 충청남북도로 분할한 적이 있었지만 감영은 여전히 공주에 두어졌으며 얼마후 다시 충청도로 합하여졌다. 따라서 조선시기에 공주에는 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남겼다. 임진왜란때 공산성은 조명연합군의 주둔지로서 기능하였고, 호란 직후인 이괄의 난때는 인조가 공산성에 파천하여 머물기도 하였다. 한편 19세기말 혼돈의 시대에 공주지역은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보수와 진보세력의 각축 현장이었다. 감영은 보수적인 국가권력의 대행기구였고, 서구세력에 대한 방어지휘부로서 기능하였던 반면, 그에 대항하는 세력의 공격 목표도 되었기 때문이다. 황새바위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것도 감영이 이곳에 있어서였고, 그런가 하면 1894년 농민 항쟁군이 우금티를 넘어 감영을 공격의 목표로 정하였던 것도 바로 그러한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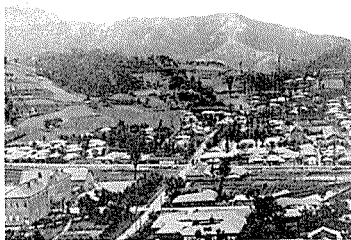
한편 일제초기에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 위치하여 공주는 여전히 충남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주가 갖는 도시적 기능과 지리적 중심성은 일제 시기를 맞으면서 변화된다. 그것은 특히 1905년 경부선 철도와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인근의 신흥 도시 대전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으로 급격히 부각되었던데 비하여, 전통적 기반을 잃은 공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과 맞물려 일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결과 1932년 충남 도청은 공주로부터 마침내 대전으로 옮겨졌고, 이후 반세기만에 대전은 인구 1백만을 웃도는 한반도의 중추적 도시로서 성장한 반면, 공주는 근대화의 변화의 물결로부터 섬과 같이 소외되고 말았다.

곳곳에 남은 역사와 문화현장들

물론 백제가 망국의 한을 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간 것처럼, 공주는 근대화의 변화 속에서 잊혀져간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으로 공주는 다른 신흥, 혹은 발전한 도시들이 개발의 과정에서 잃었던 '문화·자연의 조화속에 고풍스런 분위기'를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의도적이었던 그것이 아니었던 간에 마치 아껴둔 것처럼.

공주가 1천 5백년전 백제의 왕도로 선택되었던 도시임을 상징하는 유적들이 바로 무령왕릉과 공산성이고, 국립공주박물관은 바로 그러한 백제문화의 자취를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그러나 공주에는 비단 이같은 백제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60여 년 남짓한 웅진 백제의 역사보다도 더 길고 오랜, 역사의 흔적들이 공주땅 곳곳에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처럼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남아 있다.

공주에는 백제 왕도 이전의 유적들도 많다. 우리나라 구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라든가 금강연안에서 발달했던 선사문화 유적은 바로 그러한 흔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백제는 이곳에 왕도를 정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공주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컨대, 통일



1930년대의 공주



곰나루에 복원된 공사당(웅진단)



공주의 근대화교육 요람이었던 공주영명학교(현재는 영명고등학교)

신라말 경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왕위쟁탈전의 전초전이 이곳 공주에서 김현창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것이라든지 왕건과 견훤의 후삼국 쟁패과정에서 공주가 그 점거의 제1목표가 되는 것, 또 거란의 침입을 맞아 현종이 일시 머물렀던 자취, 무신정권기에 소위 '명학소의 난'이라 불리는 망이·망소의 천민군이 제일 먼저 공략한 곳도 공주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려말 왜구와 정유재란때 왜적이 쳐들어 온 것, 공산성 쌍수정에 이괄의 난을 피해 왔던 인조의 유적이 있는 것,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혀 죽은 황새바위 유적이 공주에 있는 것,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이 우금치에서 드날렸던 것 등등이 모두가 공주의 그러한 역사였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공주지역에는 곳곳에 고스란히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공주는 진열장 안의 유물이 아닌, 생생한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보존된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다.

'도시이미지'와 공주 건축의 미래

이상에서 필자는 공주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현재의 도시 공주"가 그러한 이름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의식과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다.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겨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문화·향토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으며,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주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의 과제이다. 공주가 문화와 역사의 도시라면 그같은 문화와 역사가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공주의 문화유적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시대에 왜 공주지역에서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고,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공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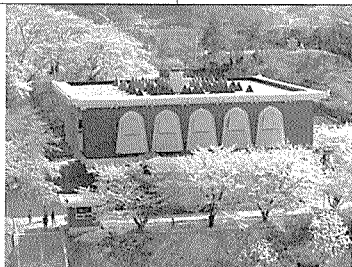
이렇게 공주가 문화와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이름 값을 제대로 지니기 위하여는 여러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의 문화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든가, 공주의 문화 자료를 지역민이나 공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공주문화의 상징성이 물씬 풍기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의 기획이 목적하는 역사도시 공주의 건축문화같은 것도 그 중요한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역사학도이다. 따라서 건축을 주제로 하는 본 기획의 중심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주가 갖는 문화적 특성 탓으로 한편으로는 필자같은 문화와 역사연구자들이 보는 시각도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근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공주의 문화적 자산들을 가시적인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노력들도 없지는 않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공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중 하나이고, 계획에 의하면 이는 백제문화 유적의 보존 정비 이외에 방문객, 관광객의 유치에 위하여 대규모 문화 관광시설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공주 무령왕릉에 가까운 웅진동 곰나루 일대에 공주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곰나루지역 40여 만평에 2001년까지 1천 8백여 억을 들여 사적지와 연계하는 콘도, 호텔, 골프장, 쇼핑센터,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 차원의 개발이라고 생각될 뿐, 공주의 '도시 이미지'를 의중에 두거나 이를 의식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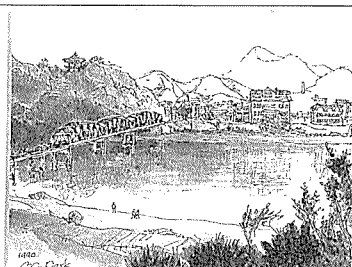
개발과 보존은 공주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문화유적의 보존은 개발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반대로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전개는 쉽게 문화유적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적 공감대에 토대한 발전의 방향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적 발굴의 모습은 매우 제한적이다. 백제문화에만 치중된 경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곰나루 관광단지로 이전·복원된 선화당



공주박물관 전경



곰나루터에서 본 공주대교와 공산성 (스케치: 박병주)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공주는 1천 5백년간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적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공산성의 성곽과 각종의 전통건물들, 그러가 하면 현재의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공주목과 충청감영의 건물들(宣化堂, 布政司, 東軒)이 인근의 곰나루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아마도 현재의 도심 속에 그러한 원형을 복원한다거나 정비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전시관에 당시의 축소모형들을 전시한다든가, 문화적 성격을 지니는 건물들의 설계와 건축에 이러한 고풍을 되살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의 고도라거나 문화도시로서의 특징과 성격을 상징화한 현대 건축물들도 얼마든지 구상될 법한데, 이점에서는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주제와 의식이 살아있는 신건축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주라는 도시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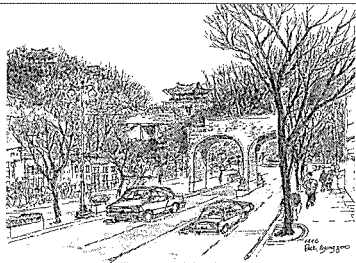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주가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시 공주가 지닌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외곽으로는 금강과 계룡산, 차령이 그것이고, 도시 내부로 보면 공산성과 제민천, 우금치, 곰나루가 바로 그러한 상징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지리적 환경들을 보존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공주에서는 제민천의 복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공산성과 인접한 곳과 봉황산(충청감영의 鎭山)에 10여 층의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입주자나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상품성있는 계획일지 모르나 공주의 도시 이미지와 장기적인 개발전략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제민천의 복개로 인한 도시 하천의 고갈과 하수구화는, 어쩌면 공주 시민의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정서를 고갈시킬 것이 뻔하다. 또 스카이라인의 상실과 굴절은 '문화도시 공주'의 명목가치를 반감(半減)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금치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공주의 남쪽 관문이다. 이곳에 농민혁명을 기리는 기념탑과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건축쪽에서 유념해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공주와 금강은 뿔라야 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강변의 도로나, 주변 경승지에 마련될 휴게공간이나 시설물들은 아름답게 구상한다면 이는 '전통'과 '자연', '현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금강주변에는 공산성과 곰나루라는 문화 상징들이 있고, 옛부터 이름난 정자나 집성촌들이 있다. 이들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됨 직하며, 이와함께 도심을 관통하여 관광도시 공주의 얼굴을 퇴색시키는 도로망의 문제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핵심 문화공간인 공주의 구 중심가는 지근한 거리의 유적들을 자전거나 도보로 관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측면은 공주가 교육도시로서 그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되는 생각이다. 공주가 교육도시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도시로서의 전통과 분위기를 다른 도시와 구별하여 느끼기는 쉽지 않다.

공주에는 조선시대의 향교가 도심속에 그윽한 정취를 지닌채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교육의 산실인 영명학교와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일제시기의 근대식 건물들도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들도 모두 건축학부면의 자원이고,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 건축부면에서 새롭게 활용한다면 교육도시 공주라는 도시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아이템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공산성입구의 쌍치형 문(스케치: 박병주)



송산리 고분군. 왼쪽이 무령왕릉(스케치: 박병주)



공주 시가지. 중앙에 공산성과 누각이 보인다.(스케치: 박병주)